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

장혜진** 윤은주***

The Current Status of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Jang, Hye Jin Yun, Eun Ju

본 연구는 영유아 부모역량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부모역량 Self-checklist를 개발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현황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영유아 부모, 유아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Self-checklist 최종 문항 선정을 위해 48인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역량 현황 조사를 위해 전국단위 지역별로 할당하여 영유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 580명, 부 420명이 참여하였다. 부모역량 현황을 살펴보면 유형면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역량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면에서는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 영역 점수가 높았고 생활지도나 지역사회 연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 관련 변인별로는 모든 측면에서 모에 비해 부의 역량이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부모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부모역량, 영유아 행복, 부모교육

* 본 논문은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제고 방안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13)의 일부를 재구성함.

** 제 1저자 :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hjjang@kicce.re.kr

***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eunjuyun@sm.ac.kr

I. 서론

양질의 영유아기 보육 및 교육경험의 제공 여부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종단연구로 속속 확인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구호 아래 무상보육과 3, 4, 5세 누리과정이 재정적 압박과 수많은 논란 속에도 2012년 전격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전히 가정환경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양육자인 부모역량은 그 어느 시기보다 자녀의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김현주, 김은영, 황인주, 이승미, 2008). 이는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비율이나 기관이용시간 증가가 부모영향력이나 부모역할의 중요성 감소를 의미하지 않음을 말해준다(OECD, 2012/2013). 오히려 부모와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부모역량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 보다 더 우수한 부모역량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학계와 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부모역량의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분석하고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고,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정계숙, 김정혜, 김미정, 2003).

그러나 지금까지의 부모역량 제고는 일반 부모보다는 주로 취약계층이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부모역량 강화의 대상이 주로 장애아를 가진 부모(강혜원, 박지연, 2011; 박재국, 서보순, 김혜리, 2011), 다문화가정 부모(강기정, 2009; 이명숙, 2011; 최애경, 2012), 한부모 가정인 점은 지금까지 역량강화가 결핍모형에 의존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부모역량 관련연구 또한 대부분 양육지식이나 양육태도, 의사소통이나 놀이 방법 등을 위주로 진행되면서 양육에 관련된 부모의 지식, 능력, 태도가 주로 강조되어온 것을 알 수 있다(박현숙, 구현영, 2010; Turnbull & Turnbull, 1997). 그런 반면에 영유아의 궁극적 존재이유이자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최종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나 영유아 권리, 웰빙의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별로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로 사회복지국가를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행복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됨에 따라 영유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부모역량 또한 이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모역량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녀의 행복 자체에 초점을 두거나 자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미흡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모역량을 단순히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즉 기능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영유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 즉, 생태적 차원에서 부모역량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미래인적자원으로서의 영유아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한 실존적 존재로서의 영유아의 현재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토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행복관점에서 부모역량을 추출하여 개발하고

이렇게 나온 부모용 Self-checklist를 통해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부모역량은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행동, 태도라는 점에서 주로 규정되어온 반면에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은 영유아가 행복한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모역량을 추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며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1. 영유아 행복의 의미

행복 혹은 행복감이란 용어는 철학, 심리학, 의학 등 출발배경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Martin E. P. Seligman의 긍정 심리학 영향으로 사변적이거나 정신병리적 접근 중심의 전통적 정의와 달리, 대다수 학자들이 행복을 긍정적 정서 혹은 만족 등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는 좋은 감정으로 정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eligman, 2002). 대표적으로 Diener(2000)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복감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며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 Being, SWB)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행복 또한 이전과 달리 이런 주관적 측면을 포함한 맥락에서 정의되는 추세이다. 김도란과 김정원(2008)은 "부모와 가족, 친구와 교사 등과의 관계나 취미활동이나 여가 생활 그리고 놀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과 행동에 대해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상태(p. 313)"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연화와 강문희(2008)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 및 생활에 대한 만족감(p. 37)"을 행복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미경과 장재숙(2009)은 영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과 아동의 내적 요인까지 포함시켜 영유아의 행복감을 "생활환경, 자아특성, 대인관계, 생활 만족 등 삶의 전반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감정(p. 105)"으로 정의하였다. 국외학자들을 살펴보면 Huebner(1991, Rees, Bradshaw & Goswami, 2010에서 재인용)는 가족, 친구, 학교, 생활환경과 자아 등 삶을 5가지로 나눠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으로 아동 행복감을 정의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서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학교생활과 연계한 행복감에 대한 정의인데(Uusitalo-Malmivaara, 2012), 이런 경향은 아동의 삶 전반이 학교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동의 행복 또한 이를 중심으로 인식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국제지표를 살펴보면 주관적 느낌보다는 영유아 웰빙이나 복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환경적 요인을 통해 행복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국제지표의 특성상 주관적 느낌보다는 객관화 가능한 외적 요인을 주로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추이는 영유아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서와 함께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적·외적 요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알려준다. 종합해 볼 때 영유아의 행복은 영유아가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스러운 감정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으로 영유아를 둘러싼 구조적·외적 요

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부모역량의 의미

역량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국립국어원, 2013)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당면한 개인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의 요소를 포함(이재분, 김혜원, 변종임, 채재은, 2009, p. 21)"하고 있다. 역량은 능력이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능력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나 정신적·신체적 기능"(국립국어원, 2013)을 말하는 데 반하여 역량은 단위 업무나 과제 수행을 넘어서 보다 총체적인 성격의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정대현과 신원애는 역량은 "사람의 필요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발휘되는 구체적인 행동(p. 182)"임을 밝히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기술이 나타나도록 뒷받침 되는 자아개념, 특질, 동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p. 183)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역량은 과업에 대한 현재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자각, 환경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모역량에 대한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주로 부모가 문제가 있어 자녀양육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역량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Azar & Cote(2002)는 아동의 요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한 충분한 적응력을 자신감 있는 양육의 모습(competent parenting)으로 보았으며 이은경(2013)은 부모역량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권리와 책임, 다양한 지식 등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개인·가정의 환경에 통제력을 발휘하는 역량으로 보았다. Conley(2003)는 부모역량을 자녀의 잠재된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지켜보며, 지지하는 능력으로 접근하였다.

부모역량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모역량은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지칭하고 양육에 관한 가치관이나 동기와 같은 내적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따라 적절한 부모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까지 의미한다.

부모역량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Turnbull & Turnbull(1997)은 동기, 지식, 기술을 부모역량으로 보았고 박현숙, 구현영(2010)은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훈육기술, 부모 자신에 대한 유능감 및 효능감을 부모역량으로 간주하였다. 정계숙 등(2003)은 자아존중감과 양육기술에 초점을 두면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관리를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강기정과 정은미(2008)는 부모역량에 대한 효능감을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이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역량 구성요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동 외에도 양육효능감이나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내적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모역량을 지식, 기술, 태도라는 전통적 범주에서 벗어나 부모역량을 부모가 갖추어야 할 내용적 측면에 이름을 붙인 경우가 있다. Azar, Lauretti & Loding(1998)는 부모역량 구성요

인을 양육기술, 사회인지기술, 자기통제,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사회적 기술로 정의하며 부모역량에 관한 개념을 일찍이 확대하였다. 정대현과 신원애(2012)는 부모코칭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코칭역량을 5가지로 나누어 실행역량, 의사역량, 관계역량, 의식역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다. 실행역량에서는 실제로 행위 하는 부모의 행동, 의사역량에서는 의사소통, 관계역량에서는 부모 자신이나 사회와의 관계 및 소통, 의식역량에서는 내면적 가치에 대한 분석, 성장역량에서는 부모로서의 성장 의지 및 동기가 포함되었다. Reder, Duncan & Lucey(2003)는 부모역량을 부모와 자녀 측면에서 바라보는 각각의 부모-자녀 관계와 맥락적 가족-환경 관계로 설정하면서 관계를 중요시하고 부모역량에 미칠 수 있는 생태학적 요인을 보다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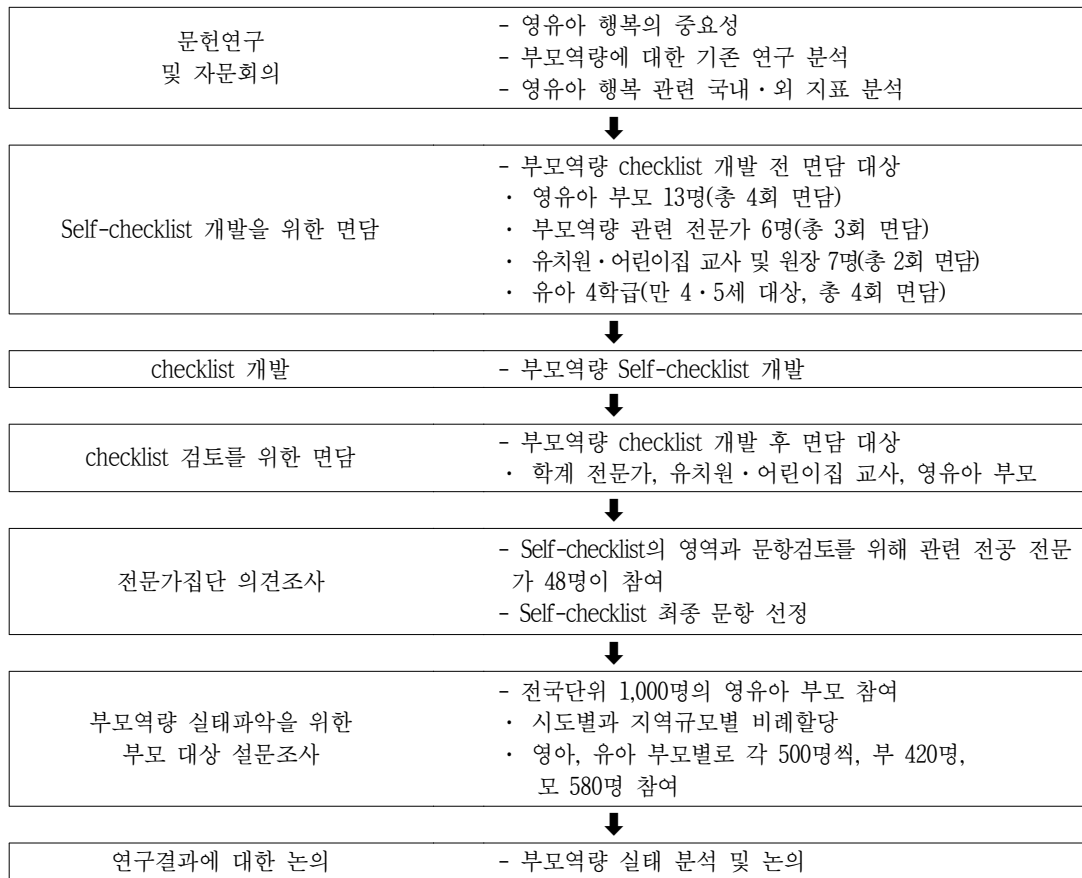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부모역량은 역량의 유형 혹은 내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성요인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역량의 유형을 보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크게 지식, 기술, 태도 측면에서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양육지식이나 양육기술뿐만 아니라 자기통제, 스트레스 관리, 부모-자녀 관계 등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학적 변인까지 포함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부모역량 개념 자체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모역량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유형과 내용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점과 영유아의 행복을 토대로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착안하여 부모역량의 유형과 내용을 동시에 다루되 내용 측면에서 영유아의 행복을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의 근거로 삼았다.

종합하건대, 본 연구는 부모역량의 전통적 범주에서 탈피하면서 실천과 성장의 의미를 강조하고 부모역량의 유형을 넓은 의미에서 접근한 정대현과 신원애(2012)의 부모역량 유형을 바탕으로 의사역량과 관계역량을 실행역량에 포함시켜 유형별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역량 유형별로 지식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인식역량, 부모역량을 위해 필요한 행동과 태도는 실행역량, 부모역량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노력 및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는 성장역량에 포함시켰다. 내용 측면에서는 부모역량이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는 점은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나 부모역량의 내용구성 근거로서 영유아 행복을 선정하여 이를 위한 조건을 선행연구와 면담을 통해 먼저 알아본 후 이를 바탕으로 부모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크게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checklist 개발과 부모역량 실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국내·외 지표를 분석한 후 Self-checklist 문항개발을 위해 영유아 부모 13명, 학계 전문가 6명,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7명, 만 4·5세 유아(3학년)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Self-checklist 영역 및 문항은 48인의 델파이 조사(유아교육·보육,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참여)를 통해 최종 영역 및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실태파악을 위하여 Self-checklist를 이용하여 총 1,000명의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개요

2. 조사 대상 및 내용

개발된 영아와 유아 부모역량 Self-checklist를 이용하여 영유아 부모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역량 실태에 대한 조사가 2013년 9월에 진행되었다. 표집은 영아와 유아 부모가 50%씩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전국단위 시도별과 지역규모별(대도시, 시군구, 읍면리)을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였다. 부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가 각각 50%씩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할당에서는 부가 420명, 모가 580명이 참여하였다. 부모용 설문조사에는 부모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변인과 영역별로 개발된 문항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 대상 응답자의 특성과 조사 내용은 각각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checklist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 영역별 문항구성에 대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보면 영유아 발달 영역 .810, 건강과 안전 영역 .804, 가족 관계 영역 .850, 놀이 영역 .855, 물리적·물질적 환경 .711, 생활지도 .541,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763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 대상 설문 응답자 세부 특성

단위: %

특성	비율(사례수)	특성	비율(사례수)
부모연령		가구소득	
20대	8.1(81)	0~200만원 미만	3.7(37)
30대	78.1(781)	200~300만원 미만	27.4(274)
40대	11.1(111)	300~400만원 미만	40.7(407)
50대 이상	2.7(27)	400~500만원 미만	19.9(199)
부모학력		500만원 이상	7.1(7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5(263)	지역	
대학(교)(4년제 미만) 졸업	36.5(365)	서울	17.8(178)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35.6(356)	경기·인천	32.8(328)
대학원 이상	1.4(14)	경상권	24.6(246)
지역규모		충청권	10.8(108)
대 도시	42.6(426)	전라권	11.3(113)
중소도시	48.3(483)	강원권	2.7(27)
읍면지역	9.1(91)		
가구구성 형태		자녀 기관 이용여부	
양부모+자녀	97.9(979)	이용	66.7(667)
한부모+자녀	0.6(6)	미이용	33.3(333)
조부모+자녀	1.5(15)		

<표 2> 부모 대상 설문 조사 내용

종류	부모대상 설문 내용		
부모 맥락 변인	영유아 공통	-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역, 가구소득 - 부모의 취업 상태 - 자녀의 나이, 자녀의 주양육자	
부모역량 범주	영유아 발달	영유아 공통 - 애착의 중요성 인식 - 연령별 발달 특성의 이해 - 적절한 발달 자극 제공 -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 - 발달 정보 습득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 활용	
	건강과 안전	영유아 공통	- 응급상황 및 질병 대처법 습득 -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영아 유아	- 안전한 실내 환경조성 및 관리 - 위험요인 인식 및 예방 - 자녀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기본생활습관 형성 조력
	가족 관계	영유아 공통	- 행복한 부모의 중요성 인식 - 안정적인 가족문화 조성 -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상 인식 - 온정적·애정적·일관적 양육 시행 - 양육태도·양육관에 대한 자기성찰 -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한 개인적 노력
	물리적 · 물질적	영유아 공통	-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 인식 - 계획적인 놀잇감 구매 - 물질적 욕구 충족에 대한 기준 제시 -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 조성 - 적정 수준의 미디어 활용

종류		부모대상 설문 내용	
환경	영아	- 오감을 자극하는 놀잇감 제공	- 영아를 위한 생필품 상시 구비
	유아	- 가정 내 놀이 활동을 위한 물품 구비	- 올바른 목적의 사교육 실시
놀이	영유아 공통	- 자녀와 함께하는 놀이의 중요성 인식	-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놀이 및 놀잇감 선정
		- 발달에 미치는 놀이의 긍정적 영향력 인식	- 안전한 놀잇감 제공
	- 바깥놀이의 중요성 인식	- 자연친화적 놀이 실시	
	- 자녀와 함께 다양한 놀이 참여	- 학습으로서의 놀이 활용	
	영아	- 오감 활용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 상징놀이 실시
	유아	- 놀이를 통한 지적 호기심 자극	- 주기적인 실외놀이 실시
생활 지도	영유아 공통	- 효과적인 생활지도방식 습득	- (부)적절한 방식의 생활지도 실시
		-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가정교육 실시	- 생활지도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점검
		- 공공예절에 대한 유의	- 문제행동에 대응되는 인적자원 활용
지역 사회 연계	영유아 공통	- 육아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파악	-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
		- 다양한 사회적·인적 자원 활용	
		- 자녀가 재원 중인 기관 활동 참여	

3. 분석방법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부모역량에 대한 7개의 역량범주와 3개의 역량유형(인식·실행·성장 역량)에 대한 부모의 변인별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변인별 분석은 본 연구가 전국단위 표집을 실시하여 전집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졌으며, 부모 연령은 표집 집단의 연령구분을 고려하였고 소득수준은 통계청 소득분위 10분위 경계값(2인이상 비농가 기준)을 바탕으로(통계청, 2013) 3분위, 6분위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누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Self-checklist를 개발하고 부모역량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나 부모역량을 평가하는 주체가 부모 자신이므로 부모역량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치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개인 간 절대적 비교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Self-checklist로 전체 문항 수에 제한이 있어 지역사회연계영역의 경우 문항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구성요인으로 델파이 조사에서 지역사회연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부모역량 Self-checklist 개발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checklist 개발

1) 국제지표를 바탕으로 한 부모역량 추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행복에 관련된 국제지표를 분석하였다. 최근 영유아 대상 연구에서도 국제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가 실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홍승애, 2013) 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웰빙지표,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을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지표가 영유아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가 아니며, 대상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영역추출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영유아의 웰빙, 복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영유아의 행복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참고하여 지표의 공통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 연령 측면에서는 영유아에 해당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OECD 아동웰빙지표, UNICEF 아동웰빙지표, 국제어린이행복종합지수, 한국주요아동지표 2006의 각 범주를 유사한 내용끼리 유목화한 결과, <표 3>과 같이 영유아 행복을 위한 영역이 추출되었다. 공통적으로 추출한 범주는 총 6가지로 물질적 지원, 건강과 안전, 놀이와 학습, 물질적 지원, 위험 행동, 가족관계이며 이 외에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으로써 지역사회 참여와 영유아 발달 2가지 범주를 추가하였다.

지역사회 참여 범주를 추가한 배경은 영유아의 기관이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부모참여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정 외의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척도가 모두 영유아를 대상인 관계로 영유아 발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모역량의 범주로 영유아 발달을 추가하였다. 이후 물질적 지원과 생활환경의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물리적·물질적 환경으로 통합하였으며, 놀이와 학습을 놀이로, 위험 행동을 생활지도로, 지역사회 참여를 지역사회 연계로 영역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표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구분	OECD 아동웰빙 지표	UNICEF 아동웰빙 지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 지수	한국주요 아동지표 2006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영역	물질적 지원	물질적 복지	경제여건	아동빈곤	▶	물리적·물질적 환경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건강	건강, 안전		건강과 안전
	교육적 웰빙	교육복지	시간활용/학교	교육 및 보육		놀이
	주거와 환경	-	생활지역	가족구조 및 생활		물리적·물질적 환경
	학교의 질	-	-	-		-
	위험 행동	행동과 위험	-	비행 및 일탈		생활지도

구분	OECD 아동웰빙 지표	UNICEF 아동웰빙 지표	국제어린이 행복종합 지수	한국주요 아동지표 2006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
	-	관계	가정/대인관계	아동의 사회참여와 생활	가족관계
	-	주관적 복지	자기 자신	-	-
	-	-	-	사회적 보호	-
	-	-	-	아동인구	-
	-	-	-	-	지역사회 연계
	-	-	-	-	영유아 발달

2) 부모역량 문항 구성

영역별 문항은 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유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48인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부모는 자녀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 갑작스런 감정 조절, 자녀의 욕구나 흥미 파악, 아버지의 양육 지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 양육 지식 습득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는 무엇보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육책임감 강화, 유아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및 이해 필요, 지나친 사교육 및 조기교육의 단점 인식, 자녀의 장점 강조,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만 4, 5세 유아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유아는 활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와의 즐거운 놀이나 색다른 경험을 원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체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형제자매와의 관계나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영역 비율을 조절하여 총 66문항 중에 가족관계에 가장 많은 문항인 16문항을 배당하였으며 건강과 안전(11문항), 놀이(11문항), 물리적·물질적 환경(9문항), 영유아발달(8문항), 생활지도(7문항), 지역사회 연계(4문항) 순으로 문항을 배분하였다. 각 영역은 부모역량의 유형별로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지며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율이 약 1:3:1이 되도록 조율하였다.

V. 연구결과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부모역량의 유형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7개 영역별로 부모변인(부/모, 부모 연령, 부모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영유아 부모역량 실태 조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전반적 실태

영역별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에 해당하는 점수가 4.10점으로 가장 높고, 지역사회 연계(3.83점)와 생활지도(3.81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영유아 부모에게 발달, 건강, 안전과 같은 주제는 비교적 친숙하고 접할 기회가 많아 역량수준이 높게 나왔으나 이에 비해 부모의 자기반성이 필요한 생활지도나 일정 시간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야 하는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역량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 변인별로 살펴보면, 부/모별과 부모 연령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으며 가구소득이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영역도 많아 부모 변인별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부/모별로 부모보다 모의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0.1~0.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간 역량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전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01$) 부의 부모역량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 부의 경우 모에 비해 지역사회 자원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연령을 35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4세 이하 집단의 부모역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경우, 자녀가 첫째아보다는 둘째아일 확률이 높아 첫째아에 비해 부모역량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역량에 도움이 되는 기회에 대한 접근 또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모든 영역에서 가구소득 순으로 부모역량이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소득이 상과 중인 부모보다 중과 하인 부모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부모역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 학력 측면에서는 영유아 발달($p < .001$)과 놀이, 생활지도($p < .05$) 측면의 부모역량 점수가 대졸 이상에서 더 높아 부모 학력에 따라 역량에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영유아 발달과 물리적·물질적 환경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나이나 지역규모가 부모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단위: M(SD)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영역별	4.10(0.46)	4.10(0.43)	4.01(0.42)	3.99(0.43)	4.02(0.44)	3.83(0.40)	3.81(0.60)	4.00(0.38)	
부 모	부	3.98(0.53)	4.00(0.48)	3.93(0.46)	3.91(0.48)	3.95(0.51)	3.78(0.43)	3.60(0.68)	3.91(0.44)
	모	4.19(0.39)	4.17(0.37)	4.08(0.38)	4.05(0.38)	4.08(0.38)	3.87(0.37)	3.97(0.48)	4.07(0.32)
	<i>t</i>	6.926(998)***	6.205(998)***	5.616(998)***	5.026(998)***	4.854(998)***	3.656(998)***	10.223(998)***	6.894(998)***
부	34세	4.14(0.44)	4.15(0.42)	4.09(0.41)	4.03(0.42)	4.08(0.43)	3.88(0.41)	3.89(0.56)	4.06(0.37)

구분	부모역량 영역								전체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 관계	물리물질 환경	놀이	생활 지도	지역사회 연계		
모 연 령	이하								
	35세 이상	4.07(0.48)	4.06(0.43)	3.96(0.43)	3.96(0.43)	3.98(0.45)	3.79(0.39)	3.75(0.62)	3.96(0.39)
	<i>t</i>	2.380(982)*	2.983(963)**	4.826(969)***	2.818(959)**	3.456(971)***	3.661(940)***	3.498(998)***	4.100(971)***
부 모 학 력	고졸 이하	4.01(0.53)	4.07(0.46)	3.98(0.47)	3.96(0.48)	3.97(0.51)	3.78(0.43)	3.75(0.69)	3.96(0.44)
	대졸 이상	4.14(0.44)	4.11(0.42)	4.03(0.40)	4.00(0.41)	4.05(0.41)	3.85(0.39)	3.84(0.56)	4.02(0.36)
	<i>t</i>	3.892(998)***	1.259(433)	1.688(998)	1.416(998)	2.480(998)*	2.538(998)*	1.955(998)	2.466(998)*
가 구 소 득	상	4.19(0.40)	4.15(0.40)	4.05(0.38)	4.04(0.40)	4.08(0.36)	3.87(0.36)	3.89(0.59)	4.5(0.33)
	중	4.12(0.45)	4.12(0.43)	4.04(0.42)	4.01(0.42)	4.05(0.44)	3.83(0.40)	3.86(0.56)	4.00(0.38)
	하	4.00(0.52)	4.04(0.44)	3.96(0.46)	3.92(0.46)	3.95(0.49)	3.81(0.44)	3.68(0.64)	3.93(0.42)
	<i>F</i>	12.681(2)***	5.501(2)**	4.195(2)*	6.411(2)**	7.404(2)***	1.709(2)	10.810(2)***	8.388(2)***

* $p < .05$, ** $p < .01$, *** $p < .001$

2.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유형별 실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인식, 실행, 성장역량으로 나누었을 때 인식역량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실행역량, 성장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안전, 지역사회 연계를 제외한 영역에서 인식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안전영역에서는 실행역량이,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성장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뢰구간을 비교하여 부모역량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지역사회 연계영역에서 인식, 실행, 성장 간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과 안전, 생활지도영역에서는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놀이영역의 경우, 부모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나 자녀와 놀아 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의지는 부족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모의 앎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을 부모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역량이 가장 낮은 것은 성장역량 문항이 부모로서 노력하고 성장하고자하는 의지를 가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노력이나 의지가 인지적인 수준에 비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표 5〉 부모역량 유형별 실태

단위: M(SD)

구분	부모역량 영역											
	영유아 발달			건강, 안전			가족관계			물리물질환경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유형별	4.10(0.47)	4.07	4.13	4.10(0.43)	4.08	4.13	4.02(0.42)	3.98	4.03	3.99(0.43)	3.98	4.03
인식	4.24(0.54)	4.17	4.23	4.01(0.62)	3.96	4.04	4.09(0.51)	4.07	4.13	4.08(0.52)	4.07	4.13
실행	4.07(0.49)	4.07	4.13	4.14(0.44)	4.08	4.13	4.02(0.45)	3.97	4.03	3.97(0.47)	3.97	4.03
성장	3.99(0.85)	3.95	4.05	3.98(0.78)	3.95	4.05	3.94(0.58)	3.86	3.94	3.95(0.79)	3.85	3.95
구분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			전체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평균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하한값	상한값
	유형별	4.03(0.44)	3.98	4.03	3.83(0.40)	3.78	3.83	3.81(0.60)	3.76	3.84	4.00(0.38)	3.98
인식	4.20(0.49)	4.17	4.23	3.92(0.71)	3.86	3.94	3.67(0.87)	3.64	3.76	4.08(0.38)	4.08	4.13
실행	3.99(0.48)	3.97	4.03	3.78(0.46)	3.77	3.83	3.84(0.61)	3.76	3.84	3.99(0.38)	3.98	4.03
성장	3.87(0.80)	3.85	3.95	3.89(0.57)	3.86	3.94	3.93(0.87)	3.84	3.96	3.93(0.49)	3.87	3.93

3.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1) 영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영역에서 아버지의 인식역량(4.14점), 실행역량(3.95점), 성장역량(3.84점)은 어머니(각 4.32점, 4.15점, 4.09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부모 연령별로 실행역량은 34세 이하 4.03점, 35세 이상 4.11점, 성장역량에서 34세 이하 3.90점, 35세 이상 4.09점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실행역량($p < .05$)보다 성장역량($p < .001$)에서 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부모 학력별로는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에서 고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역량보다는 실행, 성장역량에서 통계적으로 더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 차이가 났는데 인식역량($p < .01$)보다는 실행역량과 성장역량에서 더 큰 차이($p < .001$)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인식역량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읍면의 경우 0.27점이나 낮게 나타나($p < .001$) 큰 차이가 있어 양육지식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6>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영유아 발달

단위: M(SD), t/F(N)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14(0.58)	5.413(998)***	3.95(0.55)	6.525(998)***	3.84(0.95)	4.655(998)***
	모	4.32(0.50)		4.15(0.41)		4.09(0.74)	
연령	34세 이하	4.24(0.57)	0.244(919)	4.11(0.46)	2.512(984)*	4.09(0.75)	3.575(998)***
	35세 이상	4.25(0.52)		4.03(0.51)		3.90(0.91)	
학력	고졸 이하	4.18(0.54)	2.196(472)*	3.97(0.56)	3.658(998)***	3.82(0.98)	3.814(998)***
	대졸 이상	4.27(0.54)		4.10(0.45)		4.05(0.79)	
소득	상	4.31(0.53)	5.486(2)**	4.15(0.41)	11.509(2)***	4.11(0.80)	8.466(2)***
	중	4.26(0.53)		4.08(0.48)		4.02(0.82)	
	하	4.16(0.56)		3.97(0.54)		3.83(0.91)	
지역 규모	대도시	4.27(0.50)	10.248(2)***	4.07(0.42)	2.152(2)	3.98(0.77)	0.117(2)
	중소도시	4.27(0.58)		4.08(0.55)		3.99(0.92)	
	읍면	4.00(0.52)		3.97(0.43)		4.02(0.79)	

* $p<.05$, ** $p<.01$, *** $p<.001$

2) 건강과 안전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 부의 인식역량(3.90점), 실행역량(4.05점), 성장역량(3.85점)은 모(각 4.09점, 4.20점, 4.08점)에 비해 모두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p<.001$)에서 낮게 나타났다. 부모 연령별로 인식역량에서 차이는 없었으며 실행역량은 34세 이하 4.18점, 35세 이상 4.10점, 성장역량에서 34세 이하 4.04점, 35세 이상 3.94점으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 학력별로는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다른 영역과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실행역량($p<.01$)과 성장역량($p<.05$)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인식과 실행역량에서($p<.05$)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읍면지역 부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건강과 안전 영역은 영유아 발달 영역과 평균 점수가 같았지만 부모 변인별 차이가 적었는데 이는 영유아 발달보다 건강과 안전 관련 문항이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초역량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7>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건강과 안전

단위: M(SD), t/F(N)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3.90(0.68)	4.705(998)***	4.05(0.48)	5.550(998)***	3.85(0.87)	4.764(998)***
	모	4.09(0.55)		4.20(0.39)		4.08(0.69)	
연령	34세 이하	4.05(0.60)	1.870(972)	4.18(0.44)	2.849(954)**	4.04(0.74)	2.160(982)*
	35세 이상	3.98(0.63)		4.10(0.44)		3.94(0.81)	
학력	고졸 이하	4.01(0.60)	0.105(485)	4.10(0.47)	1.666(998)	3.97(0.81)	0.248(446)
	대졸 이상	4.01(0.62)		4.15(0.43)		3.99(0.77)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소득	상	4.04(0.58)	2.063(2)	4.19(0.42)	5.080(2)**	4.05(0.73)	3.283(2)*
	중	4.03(0.62)		4.15(0.44)		4.01(0.80)	
	하	3.95(0.64)		4.08(0.45)		3.89(0.79)	
지역 규모	대도시	3.97(0.60)	4.086(2)*	4.17(0.40)	3.045(2)*	4.01(0.72)	0.421(2)
	중소도시	4.06(0.62)		4.13(0.47)		3.97(0.83)	
	읍면	3.90(0.63)		4.05(0.44)		3.93(0.76)	

* $p < .05$, ** $p < .01$, *** $p < .001$

3)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영역에서도 부/모간의 역량 차이가 있어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 < .001$) 다른 역량보다 성장역량에서 큰 차이가 있어 아버지의 가족 관계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부모의 연령별로도 모든 역량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인식역량($p < .01$)보다는 실행과 성장역량($p < .001$)에서 연령이 낮은 부모의 역량이 높았다. 부모 학력별로는 인식역량에서만, 소득수준별로는 성장역량에서만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지역규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 관계 영역에서는 다른 역량에 비해 성장역량의 점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부모변인별 차이도 더 두드러져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의 성장의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 가족 관계

단위: M(SD), t/F(N)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00(0.54)	4.840(998)***	3.95(0.49)	4.312(998)***	3.81(0.62)	6.089(998)***
	모	4.15(0.47)		4.07(0.42)		4.04(0.52)	
연령	34세 이하	4.13(0.50)	2.600(958)**	4.10(0.44)	4.973(967)***	4.02(0.55)	3.645(982)***
	35세 이상	4.05(0.51)		3.96(0.46)		3.88(0.60)	
학력	고졸 이하	4.03(0.49)	2.204(483)*	3.99(0.49)	1.125(431)	3.90(0.67)	1.507(998)
	대졸 이상	4.11(0.51)		4.03(0.44)		3.96(0.54)	
소득	상	4.12(0.50)	1.167(2)	4.05(0.43)	2.735(2)	3.99(0.50)	7.653(2)***
	중	4.09(0.50)		4.03(0.45)		3.99(0.56)	
	하	4.05(0.53)		3.97(0.48)		3.84(0.65)	
지역 규모	대도시	4.08(0.47)	1.375(2)	4.03(0.41)	0.592(2)	3.95(0.54)	0.273(2)
	중소도시	4.10(0.54)		4.00(0.49)		3.93(0.61)	
	읍면	4.01(0.51)		4.04(0.45)		3.98(0.55)	

* $p < .05$, ** $p < .01$, *** $p < .001$

4) 물리적·물질적 환경

물리적·물질적 환경에서도 부/모간의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인식역량($p < .05$)이나 성장역량

($p < .01$)보다는 실행역량($p < .001$)에서 더 큰 차이가 있어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물질적 환경을 실제로 제공하고 조절하는 데 있어 부모의 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연령별로는 34세 이하의 집단에서 실행역량과 성장역량에서 역량 수준이 더 높았다. 부모 학력별로는 모든 역량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실행역량($p < .01$)과 성장역량($p < .05$)에서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실행역량($p < .05$)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물리적·물질적 환경 영역을 살펴보면 실행, 성장역량은 부모보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다른 영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인식역량은 부모의 성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9>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 물리적·물질적 환경

단위: M(SD), t/F(N)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03(0.55)	2.294(845)*	3.88(0.52)	5.285(998)***	3.87(0.84)	2.613(998)**
	모	4.11(0.50)		4.04(0.42)		4.00(0.75)	
연령	34세 이하	4.10(0.53)	1.325(948)	4.01(0.46)	2.474(972)*	4.03(0.78)	3.153(965)**
	35세 이상	4.06(0.52)		3.94(0.48)		3.88(0.80)	
학력	고졸 이하	4.08(0.57)	0.060(425)	3.93(0.52)	1.568(998)	3.89(0.87)	1.415(998)
	대졸 이상	4.08(0.51)		3.98(0.45)		3.97(0.76)	
소득	상	4.09(0.50)	0.817(2)	4.02(0.44)	6.925(2)**	4.05(0.71)	4.455(2)*
	중	4.10(0.52)		4.00(0.45)		3.94(0.79)	
	하	4.05(0.55)		3.89(0.51)		3.86(0.86)	
지역규모	대도시	4.06(0.50)	2.241(2)	3.95(0.43)	3.262(2)*	3.94(0.77)	0.015(2)
	중소도시	4.11(0.54)		4.01(0.51)		3.95(0.84)	
	읍면	3.99(0.56)		3.89(0.43)		3.95(0.70)	

* $p < .05$, ** $p < .01$, *** $p < .001$

5) 놀이

놀이영역은 앞서 물질적·물리적 환경 영역과 유사하게 부모 변인별 차이가 인식역량에 비해 실행, 성장역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별로는 인식역량에서 부 4.14점, 모 4.24점, 실행역량에서 부 3.91점, 모 4.05점, 성장역량에서 부 3.75점, 모 3.95점으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실행역량($p < .001$), 성장역량($p < .05$), 학력별로는 실행과 성장역량($p < .01$)에서 소득수준별로는 실행과 성장역량($p < .001$)에서 차이가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놀이

단위: M(SD), t/F(N)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4.14(0.53)	3.116(998)**	3.91(0.55)	4.626(998)***	3.75(0.90)	3.922(998)***
	모	4.24(0.45)		4.05(0.42)		3.95(0.71)	
연령	34세 이하	4.21(0.51)	0.538(998)	4.05(0.46)	4.039(978)***	3.92(0.74)	1.968(998)*
	35세 이상	4.19(0.47)		3.93(0.49)		3.82(0.85)	
학력	고졸 이하	4.21(0.48)	0.247(477)	3.91(0.58)	2.879(998)**	3.75(0.93)	2.644(998)**
	대졸 이상	4.20(0.49)		4.01(0.44)		3.91(0.75)	
소득	상	4.23(0.48)	0.654(2)	4.04(0.38)	8.504(2)***	3.94(0.71)	8.976(2)***
	중	4.19(0.49)		4.02(0.48)		3.94(0.80)	
	하	4.19(0.50)		3.90(0.55)		3.71(0.85)	
지역 규모	대도시	4.19(0.46)	1.072(2)	3.99(0.42)	0.052(2)	3.95(0.72)	3.934(2)*
	중소도시	4.22(0.50)		3.99(0.53)		3.80(0.88)	
	읍면	4.15(0.57)		4.00(0.46)		3.86(0.72)	

* $p < .05$, ** $p < .01$, *** $p < .001$

6) 생활지도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다른 인식이나 실행역량에 비해 성장역량에서 부모 변인별 차이가 나타나 부/모,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다 모,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장역량이 높았으며, 인식과 실행역량 역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의 역량 차이를 보면 다른 영역과 달리 실행역량에서 부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식, 성장역량에서는 모의 역량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표 11〉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생활 지도

단위: M(SD), t/F(N)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3.84(0.77)	2.783(998)**	3.75(0.48)	1.875(865)	3.80(0.61)	4.161(998)***
	모	3.97(0.66)		3.81(0.45)		3.95(0.54)	
연령	34세 이하	3.97(0.68)	2.017(998)*	3.82(0.49)	2.590(998)**	3.96(0.55)	3.550(998)***
	35세 이상	3.88(0.73)		3.75(0.44)		3.83(0.59)	
학력	고졸 이하	3.85(0.79)	1.692(998)	3.75(0.45)	1.551(479)	3.81(0.65)	2.695(998)**
	대졸 이상	3.94(0.68)		3.80(0.47)		3.92(0.54)	
소득	상	3.97(0.73)	2.673(2)	3.79(0.43)	1.024(2)	3.96(0.49)	7.241(2)***
	중	3.93(0.64)		3.76(0.47)		3.91(0.58)	
	하	3.84(0.77)		3.81(0.48)		3.79(0.62)	

지역 규모	대도시	3.94(0.66)	0.521(2)	3.74(0.39)	2.661(2)	3.87(0.54)	2.220(2)
	중소도시	3.89(0.74)		3.81(0.50)		3.92(0.60)	
	읍면	3.93(0.76)		3.82(0.57)		3.80(0.58)	

* $p < .05$, ** $p < .01$, *** $p < .001$

7)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연계 영역은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던 영역이며 다른 영역과 달리 실행, 성장역량보다 인식역량이 낮게 나타나 지역사회 자원의 중요성이나 정보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식, 실행, 성장역량 모두에서 부모변인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았다. 부모 간 차이는 인식, 실행, 성장역량($p < .001$)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는데 부모 간 점수 차이가 약 0.3~0.5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관심이나 의지 측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부모 연령별 차이는 실행역량에서 34세 이하 3.92점, 35세 이상 3.78점, 성장역량에서 34세 이하 4.05점, 35세 이상 3.84점, 인식역량에서 34세 이하 3.73점, 35세 이상 3.62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역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의 부모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성장역량($p < .05$)에서, 소득수준별로는 인식, 실행역량($p < .001$)에서, 지역규모별로는 성장역량($p < .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다른 영역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인식하고 실제로 활용하는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2> 부모역량 영역별 실태- 지역사회 연계

구분		인식		실행		성장	
		M(SD)	t/F	M(SD)	t/F	M(SD)	t/F
부모	부	3.51(0.92)	4.961(998)***	3.62(0.69)	10.227(998)***	3.65(1.00)	6.903(665)***
	모	3.78(0.82)		4.00(0.48)		4.11(0.72)	
연령	34세 이하	3.73(0.87)	1.984(954)*	3.92(0.56)	3.498(998)***	4.05(0.83)	3.143(591)**
	35세 이상	3.62(0.87)		3.78(0.63)		3.84(0.89)	
학력	고졸 이하	3.63(0.87)	0.904(464)	3.78(0.70)	1.777(998)	3.80(0.94)	2.244(665)*
	대졸 이상	3.68(0.87)		3.86(0.56)		3.97(0.84)	
소득	상	3.72(0.88)	8.913(2)***	3.91(0.59)	8.587(2)***	4.02(0.88)	2.605(2)
	중	3.76(0.83)		3.88(0.57)		3.92(0.78)	
	하	3.50(0.89)		3.73(0.64)		3.82(0.98)	
지역 규모	대도시	3.69(0.82)	0.789(2)	3.85(0.57)	1.929(2)	4.09(0.68)	12.688(2)***
	중소도시	3.67(0.91)		3.85(0.63)		3.84(0.96)	
	읍면	3.56(0.87)		3.72(0.62)		3.52(0.99)	

* $p < .05$, ** $p < .01$, *** $p < .00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역량 제고를 위해 영유아 행복에 초점을 두고 부모용 Self-Checklist를 개발하여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역량 영역별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면, 영유아 발달과 건강과 안전 영역의 역량 수준이 높았으며 생활지도와 지역사회 연계는 가장 낮았다. 생활지도 영역이 영유아 행복과 관련된 국내·외 지표를 통해서 추출된 영역임과 동시에 특히 유아와의 면담 시 유아의 경험 중 행복과 상충되는 내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영역임을 고려하면 생활지도 영역의 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부모역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연계와의 중요성도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OECD, 2012/2013)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나 관심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역량의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나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부모가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부모역량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과 안전과 지역사회 연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인식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과 안전 영역에서는 실행역량, 지역사회 연계 영역에서는 성장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물리적·물질적 환경, 놀이, 지역사회 연계에서는 인식, 실행, 성장 간에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건강과 안전, 생활지도에서는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식역량에 비해 실행, 성장역량이 낮은 것은 실천과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역량의 실천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해야 하고 부모역량이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성장역량을 높여 부모 스스로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를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부모변인별 부모역량 구성요인 관련 유사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부모역량의 출발점을 영유아의 행복에 두고 부모역량의 내용을 명명하였기 때문에 부모변인별 양육지식,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나 이들 간의 관계를 주로 연구한 이전의 부모역량의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부모변인별 부모역량 실태에서 부/모 간의 차이는 부모역량의 유형별, 영역별 모든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일관되게 나타났다. 도남희(2013)에 의하면 자녀양육은 여전히 어머니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어머니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들이 부모역량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서의 역할기대나 실제수행에서의 차이가 연구되기도 하여(이숙현, 1995; 한경혜, 1997; 박수선, 강기정, 2008에서 재인용) 아버지의 부모역량 제고가 계속 요구되고 있으며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필요성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신용주, 2009).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고 부모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버지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노동구조의 재고 및 일·가정 양립 방안개발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 연령별로는 35세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34세 이하 집단의 부모역량이 유사한 수준이

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영유아 발달, 가족관계, 놀이, 생활지도, 지역사회 연계였다. 눈여겨볼 점은 모든 영역의 실행, 성장역량에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부모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동일한 영역으로 부모역량으로 측정된 것은 아니나 이주옥(2008)의 연구에서는 35세 미만의 어머니가 자녀와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젊은 연령대의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에서 더 원활하다면 자녀의 요구나 관심을 더 효율적으로 인지하여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구소득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모든 영역에서 가구소득 순으로 부모역량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송미혜, 송연수와 김영주(2007)의 연구에서 만 4, 5세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양육효능감이 부모역량의 일반적인 구성요인으로 간주되는 바 부모역량이 소득수준에 따라 높아진다는 결과는 유사하였다.

부모학력 측면에서는 보통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아지고 이는 높은 양육효능감과 연결되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되나(박희진, 문혁준, 2012)본 연구에서는 인식역량보다 실행, 성장역량에서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이전의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 알고 있거나 인식하는 수준은 유사하나 실제로 행하거나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도 부모역량에 대한 차이는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변인에 비해서 크지 않았으며 지역별 차이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유사하지만 모두 읍면지역에서 부모역량이 낮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읍면지역의 부모교육 접근성이나 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 Self-checklist의 최종 목적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부모역량을 진단하고 보다 역량 있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첫 걸음은 건강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부모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진정한 부모역량 제고는 타인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역량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스스로 부모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인식은 부모로서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영유아 행복을 위한 부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행복한 영유아는 행복한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전제 하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요청되며, 부모역량 제고 측면에서 영유아 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부모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행복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기정(2009). 다문화가족 모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111-125.

- 강기정, 정은미(2008). 여성가장의 부모역할 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부모교육연구**, 5(1), 117-133.
- 강혜원, 박지연(2011).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 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1-25.
-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2013. 4. 29)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 김도란, 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간의 관계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김연화, 강문희(2008).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35-54.
- 김현주, 김은영, 황인주, 이승미(2008). 자녀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역별 활동집 개발을 위한 요구도 조사. **육아지원연구**, 3(2), 177-192.
- 도남희(2013).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 육아정책연구소 브리프 9월호.
- 박수선, 강기정(2008). 부모교육실천을 위한 부모코칭 모형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부모교육연구**, 5(2), 27-55.
- 박재국, 서보순, 김혜리(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핵심역량 요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1), 61-85.
- 박현숙, 구현영(2010). 부모역할 핵심역량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9(4), 411-419.
- 박희진, 문혁준(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신용주(2009). 반응적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성인교육학회**, 12(3), 47-72.
- 이명숙(2011).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안. **한국가족복지학**, 16(3), 209-224.
- 이은경(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분, 김혜원, 변종임, 채재은(2009). **다문화가족 역량 개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전미경, 장재숙(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정계숙, 김정혜, 김미정(2003).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변화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9(-), 117-140.
- 정대현, 신원애(2012). 부모코칭역량의 구성요인 탐색 및 검사도구 개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1), 181-208.
- 최애경(2012).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경험한 장애유아 부모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263-281.

- 통계청(2013). 국가통계포털. (2014. 4. 3).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 TabId=M_01_01#SubCont.
- Azar, S. T., Lauretti A. F. & Loding B. V. (1998). The Evaluation of parental fitness in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cases: a functional-contextual perspectiv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 77-100.
- Azar, S. T. & Cote, L. R. (2002). Sociocultural issues in the evaluation of the needs of children in custody decision making: what do our current framework for evaluation parenting practices have to offer?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25, 193-217.
- Conley, C. (2003). A review of parenting capacity assessment reports. *OACAS Journal*, 4(3), 16-22.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 OECD (2013). Starting strong 3: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신동주, 장혜진, 이경옥 옮김). 서울: 덕성여자대학교(원판 2012).
- Rees, G., Bradshaw, J. & Goswami, H. (2010). *Developing an index of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England*. London. The Children's Society.
- Seligman, Martin, E. D.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Turnbull, A. P., & Turnbull, III, H. R. (1997).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 (3rd ed.)*. CB: OH Merrill.
- Uusitalo-Malmivaara, L. (2012). Global and school related happiness in Finnish childr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4), 601-619.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improve parental capacity from the viewpoint of children's happiness. It extracts a core parental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from the international index such as OECD well-being, UNICEF Children's welfare,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and Korean children's key index. Based on the extracted core parental capacity, this study developed a self-checklist aiming to perceive parents' capacity status and suggest a political plan in order to improve parents' capacity for children's happiness. The self-checklist has a total of 66 questions and is composed of 7 domains; Child development, Health and Safety, Family relation, Physical and material environment, Play, Guidance in life, and Community engagement. The results from the survey are as follows. The domains of Development of children as well as Health & Safety are reported as the highest value at 4.1 point; on the contrary, those of Guidance in life and Community engagement are reported as the lowest value at 3.8 point. In terms of age, it was reported that the capacity of parents under 35 years-old was better than that of parents over 35 years of age. As for family income, it was revealed that the order of parents' capacity generally depends on the family income.

▶*Key Words: parental capacity, children's happiness, parental education*

논문투고	2014. 02. 16.
수정원고접수	2014. 04. 06.
최종게재결정	2014. 04. 22.